(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24-53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2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이름신학의 맥락에서 본 אֶהְיֶה אֲשֶׁר אֶהְיֶה (출 3:13-15)

정현진*

1. 여는 말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중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부여하기에 언어학과 종교사와 신학 및 주석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이름신학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1)]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셨다. 네 조상의 하나님, אֶהְיֶה אֲשֶׁר אֶהְיֶה, אֶהְיֶה, יהוה.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난제를 안겨주었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크게 일곱 가지다. i) 하나님 이름의 뿌리(기원)는 무엇인가? ii) 그 이름들을 히브리어 문법(어법)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iii) יהוה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iv) 야훼의 이름이 계시된 배경은 무엇인가? v) יהוה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오는 אֶהְיֶה אֲשֶׁר אֶהְיֶה와 אֶהְיֶה는 무슨 뜻인가? vi) 네 조상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vii)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란 무슨 뜻일까?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각각의 경우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위와 같은 물

* Johannes Gutenberg Universität in Mainz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natur33@hs.ac.kr.

1) 이것은 2024년 12월 예명대학원대학교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것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음들 가운데 주로 iv)~vi)을 다루기로 한다.

2. 하나님 이름이 계시된 배경

하나님의 이름 계시는 좁게는 출애굽기 3:1-17의 틀 곧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 조금 더 넓게는 출애굽기 3:1-4:17에, 보다 큰 범주로는 출애굽기 1:1-6:13의 문맥 안에 들어있다.[2]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이름의 계시와 히브리(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사회·역사적인 현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3]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출 3:4-6).

>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 **모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 **하나님**: …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연거푸 두 번 부르셨다. 하나님은 대체로 매우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런 형식으로 사람 이름을 부르셨다. 성경에 그런 예가 몇 번 나온다(창 22:11; 46:2; 삼상 3:10; 왕상 13:2; 행 9:4; 참조, 렘 22:29[3x]; LXX 창 22:1; 삼상 3:4).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사람의

---

2)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61; 아울러 C. Dohmen, *Exodus 1-18*, HThKAT (Berlin: Herder, 2015), 133 이하; T. D. Alexander, Exodus, AOTC (London: Apollos, 2017), 79를 참조하라.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출 1:1-6:13에서 보자면 이것은 아래와 같이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핍박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의 중심에 위치한다.

a - oppression by pharaoh (1:1-22)
  b - Moses comes to pharaoh's house (2:1-10)
    c - Moses departs from Egypt (2:11-25)
      d - Turning point: call of Moses (3:1-4:17)
    c' - Moses returns to Egypt (4:18-31)
  b' - Moses comes to pharaoh's house (5:1-4)
a' - worse oppression by pharaoh (5:5-6:13)

3) 그 시대의 사회·역사적 현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서들과 출애굽기 주석서들에 기술된 것을 참조하라.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의 중요성과 특이성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הִנֵּנִי)"라고 응답했다(4절). 이것은 종종 자신이 호명될 때 반응하는 것인데(창 22:1, 11; 31:11; 46:2 등 여러 곳) 지금의 대면을 긍정적·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나타낸다. 언어 행위 이론은 이것에 관해 대면을 수용하는 표현(Ausdruck der Kontaktaufnahme)이라고 한다. 곧 이것은 자신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인물)와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는 표시다.[4]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소명(사명)을 주셨다(출 3:7-10).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 **모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
>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물었다.[5] 모세의 이 물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베클리(O. Bächli)는 이 물음과 관련하여 모세, 기드온, 사울, 다윗 등의 경우를 두루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했다.[6] i) 이것은 과장 섞인 수

---

4) G. Fischer, *Jahwe unser Gott: Sprache, Aufbau und Erzähltechnik in der Berufung des Mose (Ex 3–4)*, OBO 9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13.

5) 예를 들면 다윗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생명)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삼상 18: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삼하 7:18)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대하 2:6; 왕하 8:13 참조)

6) O. Bächli, "Die Erwählung des Geringen im Alten Testament", *ThZ* 22 (1966), 393;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W. H. C. Propp, *Exodus 1-18*, AB (Garden City: Doubleday, 1999) 202-203; C. Houtman, *Exodus*, HCO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361; V. P. Hamilton, *Exodu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58; P. Enns, *Exodu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00), 100 등을 참조하라; 카숫토(U. Cassuto)는 이 물음이 소명을 거절하는 것이거나 그것을 이행할 능력에 대한 회의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한다. 모세의 회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출애굽기 4장에서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사학적인 물음일까? ii)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으로 표현되듯이 겸손을 나타내는 동양의 미풍양속일까? iii) 경건한 신앙에서 우러나는 심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까? iv)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약세인 히브리 민족의 현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위 사람들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까?

위와 같은 물음을 안고 본문을 살펴보자. 모세가 '… 내가 가며 … (וְאֵלֵךְ ← הָלַךְ)'라고 한 곳에 강의(Piel) 능동형 동사가 쓰였다. 그 의미는 '내가 가야만 합니까(KJV: I should go …)?'라는 말맛이 배어있다.[7] 이 구문은 וְכִי … כִּי로 가는 행위(וְאוֹצִיא ← יָצָא)에 이어지는 또 다른 행위를 강조한다(KJV: I should bring forth …). 뒷부분에 접속사 וְ와 함께 쓰인 כִּי는 '게다가, 더군다나'라는 말맛으로 쓰였다. 이는 '애굽 왕 파라오를 만나는 것만 해도 죽을 데로 가는 것 같아 몸서리쳐지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막중한 사명까지 감당해야 하다니요? 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란 말맛을 풍긴다.

"내가 누구이기에(מִי אָנֹכִי)"라는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כִּי־אֶהְיֶה עִמָּךְ)"라고 대답하셨다(12절).[8] 여기서 쓰인 동사 אֶהְיֶה는 같은 형태로 14-15절에 세 차례 더 나온다.[9] 이것은 매우 특별한

는) 개괄적인 틀로만 주어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두려워야 할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물음을 겸손 또는 자신의 무가치함(자격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았다.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36; 참조, J.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2), 245.

7) 민영진은 여기에 '감히'를 첨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리고 אֶהְיֶה는 보어나 서술어에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 "내가 …일 것이다", "내가 … 될 것이다", "내가 … 있을 것이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한다. 민영진, 『출애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90-91.

8) 드라이버(S. R. Driver)는 אֶהְיֶה를 'I will be' 곧 미래 시제로 번역하면서, 이 경우 시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본다. S. R. Driver, *The Book of Exodus: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40-41. 그는 출 3:12의 이 부분을 "반드시(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 (Certainly I will be with thee …)"로 옮겼다. 이런 번역은 유대인 주석가들이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이다. 이를테면 라쉬(Rashi, 1040-1105)는 이 부분을 "나는 이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할 것은 그들이 장차 포로로 잡혀 복종할 때와 같을 것이다(I will be with them in this affliction what I will be with them in the subjection of their future captivities)."라고 의역했다. 그는 이 말씀을 존재론적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스포어(H. H. Spoer)도 그런 입장을 따랐다. H. H. Spoer, *The Origi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tragrammat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1).

9) 프로이쓰(H. D. Preuß)는 '… ich will mit dir sein!', *ZAW* 80:2 (1968), 139-173 (*ThWAT* I:485-500 참조)에서 '너와 함께'라는 표현의 말맛을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약속이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 상대하기를 꺼리는 기드온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삿 6:16). 기드온이나 모세가 받은 사명은 여느 예언자들이 받은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선다. 모세의 사명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임마누엘 약속은 막강한 대군을 보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다. 그것은 모세에게 그 어떤 세력이라도 능히 무찌를 힘이 된다(사 35:3; 고전 1:27; 히 12:12 참조).

임마누엘 약속은 보냄받는 자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자기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매사에 함께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10] 출애굽기의 흐름 안에서 보자면 이 약속에는 하나님은 히브리 족속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모세가 출애굽기 3:11에서 하나님께 질문드리는 분위기는 출애굽기 3:4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내가 누구이기에(מִי אָנֹכִי)"라는 표현은 수용(הִנֵּנִי 참조)이 아니라 최소로 보면 겸양 또는 머뭇거림이요 최대로 보면 거절이다. 이런 동기에서 하나님은 소명의 말씀에 이어 임마누엘(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 이후의 과정에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근거가 충분할 것 같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모세: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출 3:13)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그 하나는 여정(믿음의 조상들의 여정)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및 광야 유랑에서 가나안 정착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상황(전투), 다른 하나는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현장(요셉이나 다윗 등)에서 주어지는 비교적 보편적인 약속이 그것이다. 이것은 부름을 받는 자가 뒷걸음치려 할 때 지지와 보호를 나타내며 힘을 실어주는 구약성경의 문맥에서 100여 번 쓰인다. 이것은 i) 명사 문장의 짧은 구문 또는 ii) 출 3:12와 같이 הָיָה 동사를 포함하는 동사 문장으로 나타난다. G. I. Davies, *Exodus 1-18*, ICC (Bloomsbury: T&T Clark, 2020), 256-257; 김창주, 『출애굽기 나루: 자유와 구원과 해방의 이야기』(서울: 동연, 2023), 86 참조.

10) C. Houtman, *Exodus*, 95; C. Dohmen, *Exodus 1-18*, 154.

> 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출 3:14-15)

모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냐고 했다(13절).[11] 여기에 이름이란 낱말(שֵׁם)이 출애굽기에 43번[12] 중 4번째로 등장한다.

출애굽기 3:11에서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했던 모세는 출애굽기 3:14에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 하우트맨(C. Houtman)은 여기 나오는 מַה־שְּׁמוֹ(그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내포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13]

>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품성을 아는 것이다. 이는 그 둘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된 것을 전제로 한다(사 45:3 이하 참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참으로 자기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

11) 이런 물음(의견제시)에 관해 자이츠(C. R. Seitz)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애초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그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떻게 검증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름을 묻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들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보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변자에게 억지로 귀 기울이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C. R. Seitz, "The Call of Moses and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Name: Source-Critical Logic and Its Legacy", C. R. Seitz and K. Greene-McCreight, eds., *Theological Exegesis: Essays in Honor of B. S. Childs* (Grand Rapids: Eerdmans, 1999), 152.

12) E. Jenni and C. Westermann, hrs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I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937; C. Houtman, *Exodus*, 58.

13) C. Houtman, *Exodus*, 387-388. 여기서 그는 이에 관해 학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U. Cassuto: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특별한 이름을 잊고 살았다;
- A. Dillmann: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 때 여러 신을 동시에 섬겼으며, 모세가 그것들 가운데 어느 신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지 궁금했다(수 24:14; 겔 20:7 이하 참조);
- P. Heinisch: 이 물음에서 우리는 i) 이스라엘이 조상의 하나님을 잊었기에 이제는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묻거나 ii) 이집트의 다신교적 경향에 따라 자기들을 다른 신들과 구별해주는 하나의 이름을 알고 싶어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H. Holzinger: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숭배를 통해 신과 접촉하기 위해 그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사 13:17 참조);
- R. A. Cole: 이것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것을 반영한다(창 16:13 참조);
- E. Segal: 이것은 '이 이름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다(창 21:29; 출 13:14; 수 4:21 참조).

> 확신을 얻고 싶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과 그 분의 계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모세는 자신이 보내진 자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모세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창 32:30; 사 13:17 이하 참조).

야훼를 향한 모세의 이 물음은 i) 3:11에 배어있는 망설임이나 거절보다는 한결 마음이 열린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ii) 그가 지닌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번('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나오고 그 말씀의 내용이 אֶהְיֶה אֲשֶׁר אֶהְיֶה와 אֶהְיֶה 그리고 יהוה로 세 차례 쓰였다(14-15절).[14]

이 세 가지 용어에 접근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 곧 i) 그것의 어원을 고대 근동의 언어들 및 문화와 연결시켜 찾아가는 방식, ii) 히브리어 어법이나 문법에 무게를 두는 방식, iii) 출애굽기 3장, 또는 3-4장, 또는 1-14장, 또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계시는 출애굽기 14:31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기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별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도 나온 것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4번 쓰였다(출 3:6, 13, 15, 16).[15]

---

14) 장일선은 이 세 가지 표기를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같은 뜻으로 보았다. 장일선, 『구약신학의 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88; 앤더슨과 프리드맨(F. I. Andersen and D. N. Freedman)은 호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For you are not my people, and I am not *Ehyeh* for you. 참조, 렘 11:4; 겔 11:20)"를 놓고 이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여기 나오는 אֶהְיֶה를 하나님 이름으로 본 것이다. F. I. Andersen and D. N. Freedman, *Hosea*, AB (Garden City: Doubleday, 1980), 4.

15) 대다수 성경번역본은 출 3:6과 출 3:13, 15, 16에서 단수와 복수로 쓰인 '아버지'란 낱말을 거의 같게 번역한다. 학자들 대부분은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버지란 낱말(단수 אָב;

네 조상의 하나님 (אֱלֹהֵי אָבִיךָ, 출 15:2 내 아버지의 하나님[אֱלֹהֵי אָבִי])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אֱלֹהֵי אֲבוֹתֵיכֶם)
너희 조상의 하나님(אֱלֹהֵי אֲבֹתֵיכֶם)
너희 조상의 하나님(אֱלֹהֵי אֲבֹתֵיכֶם)
(참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 [출 3:18])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 또는 자신을 소개하신 것으로 보인다(창 28:13; 35:11 참조).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들의 이름과 구체적으로 맺어진 분으로 등장하신다.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심어주셨다.[16]

출애굽기 3:6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로 평범하게 쓰이는 אֲנִי 대신에 특별하게 강조하는 뜻이 담긴 1인칭 대명사 אָנֹכִי가 사용되었다. 그런 말맛을 살려 보자면 이것은 다음과 같다.[17]

i) 나는 바로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나는 다름 아닌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ii) 나는 곧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iii) 나로 말하자면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와 같은 자기 계시(소개)는 비록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 지금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그곳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아기까지 낳은 모세, 장인의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 모세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동족의 아픔이 가슴 깊이 다가왔을 것이다.

위와 같이 하나님이 "나는 …"라는 형식(명사 문장 또는 הָיָה 동사가 들어

복수 אָבוֹת)이 아버지와 조상을 가리키는 중의법으로 쓰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다만 그린버그(M. Greenberg)는 출 3:6에서 하나님이 '바로 네 아버지 아므람의 하나님'이란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아직 자신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없는 모세에게 일부러 작은 불 속(סְנֶ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모세와 접촉점을 만들려는 배려심에서 그의 아버지 아므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추측하는 것이다(삼상 3:4 이하 참조). M. Greenberg, *Understanding Exodus: A Holistic Commentary on Exodus 1-11* (Eugene: Cascade, 2013), 72-73; T.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73; 박철현, "출애굽기 3:1-4:17 - 평범한 날의 비범한 사건",「헤르메네이아 투데이」23 (2003), 66-67.

16) A. D. Surls, *Making Sense of the Divine Name in the Book of Exodus From Etymology to Literary Onomastic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Supplement (Winona Lake: Eisenbrauns, 2017), 76.

17) 인칭대명사 אֲנִי와 אָנֹכִי에 관해서는 *Gesenius*, 18th ed., 81-82; *HALOT*, 69-70; *THAT* I:216-220을 참조하라.

있는 동사 문장)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장면은 성경에 자주 나온다.[18]

'나는 … 이다'라는 틀로 자신을 알리는(소개 또는 과시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포고문이나 비문 등에도 널리 쓰였다. 예를 들어 모압 왕 메샤의 비문을 보자.

<그림 1> 모압 왕 메샤의 비문과 해석의 일부



1 나는 메샤, 그모스 [얏트]의 아들, 모압 임금, 디본 사람이다. … 3 그리하여 나는 카르호호에 그모스를 위하여 이 산당을 세웠다. [나는] 이것을 [승리] 4에 도취하여 세웠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든 왕에게서 건지셨고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적을 내려다보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오므 5 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모압을 오랫동안 억눌렀다. 왜냐하면 그모스가 그 땅을 노여워하셨기 때문이다. 6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도 말하였다. "내가 모압을 억누르리라." 나의 날들에 그[모스]가 말씀하셨고, 7 나는 그와 그 집을 내려다보았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영영 망했다 …

출처: 루브르 박물관 소장.

'네(나의) 조상(아버지)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도 나타난다. 주전 19세기에 나온 고대 앗시리아 왕 콰트나의 편지, 주전 14세기의 이집트 아마르나 문서, 라스 샤므나 근교 우가릿에서 나온 편지 등에는 '내 아버지의 신 아슈르', '우리 아버지의 신 아슈르와 아무룸', '우리 선조의 신 아슈르와 아무룸', '내 아버지의 신 샤마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 란 표현이 있다.[19]

---

18)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창 15:7);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창 28:13);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창 35:11);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창 46:3);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 신 5:6; 참조, 출 34:6; 레 19:36; 25:38).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형식으로 자신을 7차례 나타내셨다. i)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ii)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iii) 나는 문이다(요 10:7,9); iv)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1); v)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vi)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vii) 나는 참 포도나무다(요 15:1, 5). 이것들은 요 8:24, 28, 58; 13:19와 함께 예수 이름에 내포된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비유)이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한 것이다.

19) 고대 근동의 앗시리아 문헌(주전 19세기)에 나오는 *ilib*라는 낱말이 아마 '조상의 신(god of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에 관해 아이스펠트(O. Eißfeldt)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20]

>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조상들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다. 따라서 하나님 이름의 지속성과 변함없음은 그가 과거 세대들 가운데서 보여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우리는 '네 조상(아버지)의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크게 네 가지 말맛을 본다.

i)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사이의 특별한 친분 관계를 나타낸다.

ii) 이 본문에서 '네(너희) 조상(조상들)의 하나님'이란 표현 그 자체 못지않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조상 세 사람(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과 더불어 삼중으로 되풀이 나오는 '하나님'이란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기 가문 및 히브리 민족의 신앙 공동체와 모세의 연속성을 보여 준다.[21] 곧 '네(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인의 신앙이 각 시대·세대의 차이와 단절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흐르는 것을 나타낸다.

iii)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 인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출애굽기의 흐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뜻이다.[22]

iv) 그러므로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단순히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활 현실에서 지속적·반복적·미래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미 함께 계셨던 분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23]

Vater)'이란 뜻일 것이며, 고대 이집트 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 G. I. Davies, *Exodus*, 247; 성서와함께 편집부, 『어서 가거라』 (서울: 성서와함께, 1992), 89.

20) O. Eißfeldt, *Kleine Schriften*, Bd. 4 (Tübingen: J. C. B. Mohr, 1968), 196.

21) T. E. Fretheim, *Exodus*, 74.

22) C. Houtman, *Exodus*, 95.

23) Ibid., 96.

4. 나는 "אֶהְיֶה אֲשֶׁר אֶהְיֶה", "אֶהְיֶה"(출 3:14)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물었다(מָה־שְּׁמוֹ,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24] 부버(M. Buber), 모티여(J. A. Motyer) 등 여러 학자에 따르면 이 물음이 단순히 어떤 존재의 이름(칭호)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그 이름 뒤에 무엇이 숨어있거나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알려는 것이다. 나아가 그와 자신의 연관성 또는 그의 자질을 알려는 물음이다.[25]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אֶהְיֶה אֲשֶׁר אֶהְיֶה라며 제법 길고도 모호한 대답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야훼 하나님의 이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自存者)'라는 뜻, 곧 철학적 개념이거나 신학적 교리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를 일러주는 말씀이다.[26]

이제부터 אֶהְיֶה אֲשֶׁר אֶהְיֶה의 번역에 관해 살펴보자.

출애굽기 3:13-15(특히 14절)에 관해 학자들이 연구한 문헌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다. 그들은 이 부분의 풀이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27] 우선 이 부분에 관한 주요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자(괄

---

24) 참조, 창 32:27-28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삿 13:17-18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잠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25) M. Buber, *Moses: The Revelation and the Covenant* (New York: Harper Torchbook, 1958), 48; J. A. Motyer,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Name* (London: Tyndale, 1959), 18-19; A. D. Surls, *Making Sense of the Divine Name*, 76-77; 플로스(J. P. Floss)는 이런 입장에 선 학자들의 이론과 논문을 열거하면서, 그것에 반대한다. 곧 모세는 이름을 물은 것이지 그 이름의 의미를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J. P. Floss, "Ich bin mein Name. Die Identität von Gottes Ich und Gottes Name in Ex 3,14", W. Gross, H. Irsigler, and T. Seidl, hrsg., *Text Methode und Grammatik: Wolfgang Richter zum 65. Geburtstag* (Wien: EOS-Verlag, 1991), 72.

26)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17; E. Zenger, *Der Gott der Bibel: Ein Sachbuch zu den Anfängen des alttestamentlichen Gottesglaubens*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6), 110; 김이곤, "고난신학의 맥락에서 본 야훼 신명 연구", 「신학연구」 27 (1986), 171-202; W. H. Schmidt, *Exodus 1,1-6,30*, B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179.

27) JHWH와 אֶהְיֶה אֲשֶׁר אֶהְיֶה란 용어의 기원과 그 의미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려면 여러 주석서와 함께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라. H. Algyogyi-Hirsch, "Über das angebliche Vorkommen des biblischen Gottesnamens יהוה Jahve in altbabylonischen Inschriften", *ZAW* 23 (1903), 355-371; D. Völter, "Die Herkunft Jahwes", *ZAW* 37(1917), 126-133; W. F. Albright,

호 안의 내용은 각주).[28]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 2. The Divine Name", *JBL* 43 (1924), 370-378; F. M. Cross, "Yahweh and the God of the Patriarchs", *HTR* 55 (1962), 225-259; D. N. Freedman,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JBL* 79 (1960), 151-156; W. H. Brownlee, "The Ineffable Name of God", *BASOR* 226 (1977), 39-46; J. P. Hyatt, "Was Yahweh Originally a Creator Deity?", *JBL* 86 (1967) 369-377; C. D. Isbell, "The Divine Name ehyeh as a Symbol of Presence in Israelite Tradition", *HAR* 2 (1978), 101-118; D. J. McCarthy, "Exod 3:14: History, Philology and Theology", *CBQ* 40 (1978), 311-322; J. R. Lundbom, "God's Use of the Idem per Idem to Terminate Debate", *HTR* 71 (1978), 193-201; J. G. Janzen, "What's in a Name? Yahweh in Exodus 3 and the Wider Biblical Context", *Int* 33 (1979), 227-239; R. Abba, "The Divine Name Yahweh", *JBL* 80 (1961), 320-328; O. Eißfeldt, "Neue Zeugnisse für die Aussprache des Tetragramms als Jahwe", *ZAW* 53 (1935), 59-76; O. Eißfeldt, "'ehyeh 'ašer 'ehyeh and 'el olam", *Kleine Schriften*, Bd. 4, 193-198; O. Eißfeldt, "Jahwe, der Gott der Väter," *ThLZ* 88 (1963), 481-490; S. D. Goitein, "YHWH the Passionate: The Monotheistic Meaning and Origin of the Name YHWH", *VT* 6 (1956), 1-9; E. C. B. MacLaurin, "YHWH: The Origin of the Tetragrammaton", *VT* 12 (1962), 439-463; S. Mowinckel,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HUCA* 32 (1961), 121-133; S. Amsler, "היה", *THAT* I:477-486; B. N. Wambacq, "'ehyeh 'ăšer 'ehyeh", *Bib* 59 (1978), 317-338; N. D. Osborn, "This Is My Name Forever: 'I Am' or 'Yahweh'", *BT* 39 (1989), 410-415; C. Noce, "Il nome di Dio: Origine e l'interpretazione dell'Es. 3,14", *Div* 21 (1977), 23-50; R. de Vaux, "La revelation du nom divin", R. de Vaux, ed., *Histoire ancienne d'Israël, Vol. 1: Des origine à l'installation en Canaan* (Paris: Gabalda, 1971), 48-75; B. Albrektson, "On the Syntax of אהיה אשר אהיה in Exodus 3:14," P. R. Ackroyd and B. Lindars, eds., *Words and Meaning: Essays Presented to David Winton Thom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15-28; A. R. Millard, "Yw and Yhw Names", *VT* 30 (1980), 208-212; R. Youngblood, "A New Occurrence of the Divine Name 'I AM'", *JETS* 15 (1972), 144-152; B. Beitzel, "Exodus 3:14 and the Divine Name: A Case of Biblical Paronomasia", *TJ* 1 (1980), 5-20; H.-P. Müller, "Der Jahwename und seine Deutung Ex 3,14 im Licht der Textpublikationen aus Ebla", *Bib* 62 (1981), 305-327; A. Phillips and L. Phillips, "The Origin of 'I AM' in Exodus 3.14", *JSOT* 23(1998), 81-84; H. Irsigler, "Von der Namensfrage zum Gottesverständnis: Exodus 3:14-15 im Kontext der Glaubensgeschichte Israels", *BN* 96 (1999), 56-96; N. Kilwing, "Noch einmal zur Syntax von Ex 3,14", *BN* 10 (1979), 70-79; R. Bartelmus, "Ex 3,14 und die Bedeutung von HYH", R. Bartelmus, hrsg., *Auf der Suche nach dem archimedischen Punkte der Interpretation: Studien zu einer philologisch-linguistisch fundierten Exegese alttestamentlicher Texte* (Zürich: Pano Verlag, 2002), 383-402; E. A. Knauf, "Yahwe", *VT* 34 (1984), 467-472; M. J. Stahl,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Biblical God Yahweh", *Religion Compass* 2 (2020), 1-14; 김이곤, "고난신학의 맥락에서 본 야훼 신명 연구"; 박태범, "구약의 신명(神名) 계시(啓示)에 관한 기초신학적 연구",「가톨릭사상」26 (2002), 103-132; 김창주, "하나님 네 글자와 두 계약의 연속성 - 출 3장 14절과 계 1장 8절의 경우",「구약논단」16 (2010), 237–257; 권성달,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에흐예(אהיה)'를 중심으로-",「성경원문연구」26 (2010), 7-31; 주은평, "고대 이집트인의 이해를 근거로 본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아도나이)에 관한 해석",「구약논단」18 (2012), 61-84; 박철현,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구약논집」24 (2022), 131-170; 변경욱, "호세아서 내의 야곱 전승과 모세 전승 합류에 관한 연구 호세아 12장에 나타난 신명의 사용",「구약논단」94 (2024), 141-176. 이 밖에도 아주 많은 논문이 있다.

28) 히, '나는 나다'. 이 부분의 번역이 매우 까다롭고 조심스럽다는 점은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

TKW(1906)	Gott antwortete: »Ich bin der, der da ist. (Oder: “Ich bin, der ich bin.”,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Darum sage den Israeliten: ›Der Ich-bin-da hat mich zu euch gesandt.‹«[29]
ELB(2006)	Da sprach Gott zu Mose: »Ich bin, der ich bin (o.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Dann sprach er: So sollst du zu den Söhnen Israel sagen: <Der> »Ich bin (Das hebr. Wort für ‘sein’ klingt an den Gottesnamen Jahwe an. Siehe Vorwort)« hat mich zu euch gesandt.[30]
ZB	Da sprach Gott zu Mose: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Und er sprach: So sollst du zu den Israeliten sprechen: Ich-werde-sein hat mich zu euch gesandt (“Ich-werde-sein” soll den Gottesnamen Jahwe [in dieser Übersetzung: HERR] erklären, bei dem ein Anklang an hebräisch ‘er wird sein’ gehört werden sollte).
NIV(2011)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Or “I will be what I will be”)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NGÜ	Da erwiderte Gott Mose: Der “Ich bin, der ich bin”; dann sprach er: So sollst du den Israeliten sagen: Der “Ich bin” hat mich zu euch gesandt!
ESV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Or I am what I am, or I will be what I will be) And he said,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우리말 성경과 학자들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אֶהְיֶה אֲשֶׁר אֶהְיֶה의 번역 분류

성격	역본	본문
직역	『공동』	나는 나다.

각주가 달린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권성달은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에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제시한다.

29) E. Kautzsch, hrsg., *Die Textbibel* (Tübingen: J.C.B. Mohr, 1906).

30) *Die Elberfelder Bibel* (Wuppertal; Dillenburg: R. Brockhaus; Christliche Verlagsgesellschaft, 2006).

성격	역본	본문
직역	『공동개정』 『새번역』	나는 곧 나다.
	『성경』(2005)	나는 있는 나다.
의역[31]	『구역』(1911)	나는 ᄌᆞ연히 잇ᄂᆞᆫ자라
	『개역』(1938)	나는 스사로 잇는 쟈라
	『표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음역	『새한글』	*에헤 아셰르 에헤*[32]
확대번역	E. Zenger	Ich will bei euch dasein als welcher ich bei euch da sein will.[33]

『개역개정』과 『표준』은 여기에 부사 '스스로'를 추가했다(『새한글』은 각주에 '스스로'를 포함시킴). 이는 고대 역본들이나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아마 i) 히브리어 אֶהְיֶה에 포함된 1인칭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ii) 동사 '있다'와 어울리는 적절한 낱말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3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에 הָיָה 동사가 쓰였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매우 폭넓게(3,632번) 쓰인다.[35] 구약성경에서 הָיָה 동사가 미완료(PK) 1인칭 단수로 쓰이는 예는 출애굽기 3:14 말고도 64차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상에 관해 말씀하시는 경우만도 29번 있다.[36]

אֶהְיֶה אֲשֶׁר אֶהְיֶה와 אֶהְיֶה가 יהוה에 관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다. 물론 학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37] 그런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은 번역의 차이

---

31)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칠십인역의 ἐγώ εἰμι ὁ ὤν (I am THE BEING, I am the one who is.)이라는 표현에 의존했다.

32) 학자들은 אֶהְיֶה אֲשֶׁר אֶהְיֶה(또는 אֶהְיֶה)를 하나님의 이름(고유명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과 역할을 밝히는 표현으로 이해할 것이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새한글』은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를 달았다. 허성갑의 『히브리어직역 구약성경』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전체 또는 '에흐예'를 고유명사로 보아 음역했고, 최의원, 『새즈믄 하나님의 말씀』; 유재원 외 9인 『쉬운성경』은 '에흐예'를 고유명사로 보아 그 부분을 음역했다.

33) E. Zenger, *Am Fuß des Sinai: Gottesbilder des Ersten Testaments* (Düsseldorf: Patmos, 1993), 109-111.

34) 권성달,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17.

35) J. Bergman, "hājâ", *ThWAT* II:396.

36) Ibid., II:407.

37) C. Houtmann, *Exodus*, 94; 해밀턴(V. P. Hamilton)은 이 부분에 관한 번역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보았다. i)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I am who am)."; ii) "나는 존재했던 자이다(I am who was)."; iii) "나는 마땅히 존재할 자이다(I am who shall be)."; iv) "나는 존재

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LXX	ἐγώ εἰμι ὁ ὤν (I am THE BEING, I am the one who is.)
Theodotion	ἔσομαι ὃς ἔσομαι (I will be who I will be)
VUL	ego sum qui sum (I am who I am)

* 조동사를 넣어서 옮김

W. H. C. Propp (1999)	I will be who I will be.
T. B. Dozeman (2009)	I will be who I will be.
R. Alter (2004)	I-Will-Be-Who-I-Will-Be.[38]
R. J. Pannell (2006)	I Would Be Who I Would Be!
T. D. Alexander (2017)	I shall be who I shall be.
G. I. Davies (2022)	I will be (there) as I will be (there).

* הָיָ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옮김

J. Wellhausen (1889)	Ich bin, sintemal ich bin.
B. Baentsch	Ich bin, sintemal ich bin.[39]
M. Noth (1958)	Ich bin, der Ich bin. (Ich bin, so viel ich sein will)[40]
C. Houtman (1993)	I am whosoever I am.(What does it matter who I am?)[41]

* הָיָה 동사를 미래 시제로 옮김

Buber-Rosenzweig	Ich werde da sein, als der Ich das sein werde.
G. von Rad (1957)	Ich werde (fuer euch) dasein.
G. Fischer (1989)	Ich werde sein, wer immer ich sein werde.
G. Theuer (2008)	Ich werde da sein, als der Ich da sein werde.
H. Utzschneider, W. Oswald (2013)	Ich werde sein, wer immer ich sein werde.

하는 자였다(I was who am).”; v) “나는 존재했던 자였다(I was who was).”; vi) “나는 존재할 자였다(I was who shall be).”; vii) “나는 존재하는 자일 것이다(I shall be who am).”; viii) “나는 존재했던 자일 것이다(I shall be who was).”; ix) “나는 존재할 자일 것이다(I shall be who shall be).” 해밀턴은 who를 소문자로 썼다. V. P. Hamilton, *Exodus*, 64; NIV, NRS 등 번역 성경 대부분은 그것을 대문자(Who)로 썼다.

38) R. Alter, *The Five Books of Mos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 2008), 321-322. 그는 이곳의 문맥에 따라 shall(선언)보다는 will(확언)을 번역어로 채택했다. 그는 위의 해석 말고도 “나는 항상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등 다르게 옮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39) W. R. Arnold, “The Divine Name in Exodus iii:14”, *JBL* 24 (1905), 125에서 재인용.

40)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AT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org. ed. 1958), 30-31.

41) C. Houtman, *Exodus*, 95-96.

C. Dohmen (2015) Ich werde sein, der Ich werde sein.

* 기타의 경우

P. Haupt (1909)	I cause to be what comes into existence.[42]
W. F. Albright (1924)	I cause to be what comes into existence.
D. N. Freedman (1960)	I create what create.(I am the creator.)
김이곤(1987)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존재케 하도록 할 자이다.[43]
박철현(2022)	에흐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הָיָה 동사와 관련하여 필자는 미래적인 의미로 풀이하는 것을 선호한다.[44] 물론 이것은 과거 및 현재적인 의미를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3:14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계 1:4, 8)의 종말론적-묵시적 견해와 연결시킬 때 더욱 명확해진다.[45]

"나는 내가 있었던 자다."
"나는 지금도 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현존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기보다는 그 전체를 포괄하는 '온 시간'에 걸쳐 있는(언제 어느 시간에나 통틀어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5. 나는 יהוה

יהוה와 그 단축형 יָהּ 그리고 확장된 표현(예: יהוה צְבָאוֹת)의 스펙트럼은 성경 안팎에 걸쳐 있을 만큼 대단히 넓다.[46] 여기서는 학자들이 출애굽기

42) P. Haupt, "Der Name Jahwe", *OLZ* 12 (1909), 211-214.
43) 김이곤, "야훼는 누구이신가 – 출애굽기 3장", 「기독교사상」 340 (1987), 197.
44) אהיה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미완료형(AK, Ipf.)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서 이런 동사 형태는 흔히 미래나 과거로 번역된다. 그리고 무시간적 현재(영원한 현재, timeless present)라는 말맛에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단순하게 번역하자면 이것은 '나는 … 이었다.''나는 … 이다.' '나는 … 일 것이다'로 옮길 수 있다.
45) W. H. Schmidt, *Exodus 1,1-6,30*, 178-179를 참조하라.
46) 구체적인 내용은 C. Dohmen, *Exodus 1-18*; B. Becking, "Jahwe", *WiBiLex* (2006), accessed 10 October 2025 from https://bibelwissenschaft.de/stichwort/22127/의 연구를 참조하라.

3:14의 אֶהְיֶה אֲשֶׁר אֶהְיֶה와 יהוה에 관해 연구한 것들 가운데 주요한 것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i) 이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존재하시리라(God will be who he is)"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분의 본래 모습 그대로, 곧 그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אֶהְיֶה אֲשֶׁר אֶהְיֶה라는 특이한 표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단순히 그분에게 붙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일)에서 나오는 것을 강조한다.[47]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1-15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ii) 출애굽기 3:14의 אֶהְיֶה는 15절의 '여호와'(야훼)라고 옮긴 히브리어와 발음도 비슷하고(히브리어 hājâ = 아람어 hāwâ), 그 뜻도 관련이 있다.[48] 노트(M. Noth)는 말한다.[49]

> 14-15절에 이름짓는 내용이 나온다. 그 이름은 처음에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ähjäh ᵃšär ähjäh = 나는 곧 나다. Ich bin, der Ich bin.)라는 신비로움 가득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는 에흐예(ähjäh = 나는 이다. Ich bin)라는 핵심용어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 (14절) 이스라엘 사람의 귀에는 에흐예(ähjäh)가 야훼(jahwäh)로 옮겨가는 것이 단순히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옮아가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한, ähjäh가 아주 분명하게 jahwäh라는 하나님 이름을 암시한다.(여기 보면 ähjäh에는 j, jahwäh에는 w가 쓰였다. 그 w는 낱말 첫머리에 j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동화현상 dissimlation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jahwäh라는 이름은 '그는 이다'(Er ist)라는 의미로 이해되곤 한다.

iii) 출애굽기 3장에서 동사 הָיָה는 단지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 곧 '이다, 있다, 잇다, 생겨나다'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효능감(실효성) 있는 존재(Wirksam Sein)를 나타낸다.[50] 이런 입장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성경에는 하나님

---

47) T. D. Alexander, *Exodus*, 42.

48)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31; 참조, T. D. Alexander, *Exodus*, 90; A. D. Surls, *Making Sense of the Divine Name*, 44.

49)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30; 참조, O. Grether, *Name und Wort Gottes im Alten Testament*, BZAW 64 (Berlin: Verlag von Alfred Töpelmann, 1934), 6; C. Dohmen, *Exodus 1-18*, 162-163.

50) 이것은 C. H. Ratschow, *Werden und Wirken, eine Untersuchung des Wortes hajah*, BZAW 70 (Berlin: Verlag von Alfred Töpelmann, 1941);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d. I (München: C. Kaiser Verlag, 1957), 182; W. Zimmerli, *Gottes Offenbarung: Gesammelte Aufsaetze zum Alten Testament* (München: C. Kaiser Verlag, 1963), 290에서 제안한 것에 따라 W. H. Schmidt, *Exodus 1,1-6,30*, 79-182에서 전개한 개념이다.

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예가 아주 많다. 여호수아의 다음과 같은 물음(호소, 하소연)이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믿음을 반영한다.

여호수아 7: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열왕기상 18: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이름 자체가 그 신의 본성(특성)과 사역(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곤 했다. 그런 예가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온다. 곧 אֵל עֶלְיוֹן(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 14:18-20), אֵל רֳאִי(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 16:13), אֵל שַׁדַּי(전능하신 하나님, 창 17:1), אֵל עוֹלָם(영원하신 하나님, 창 21:33), אֵל בֵּית־אֵל(베델의 하나님, 창 31:13), פַּחַד יִצְחָק(이삭이 경외하는 이, 창 31:42, 53) 등이 그것이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위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이름을 자신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위의 예들과는 다른 대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에는 앞에서 언급한 다른 이름들과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אֶהְיֶה는 יהו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אֶהְיֶה가 '나는 있다(나는 이다)'라는 뜻이라면, יהוה는 '그는 있다(그는 이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אֶהְיֶה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יהוה 곧 '그분은 있다(이다)'라고 할 것이다.[51]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앞서 언급한 אֵל עוֹלָם, אֵל עֶלְיוֹן 등 여러 이름(호칭)은 하나님의 특성이나 본질 가운데 한 가지 내용(특징)을 유별나게 강조하는 것인데 비해, יהוה(אֶהְיֶה)는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개별성(특수성)보다는 전체성(포괄성)이 들어 있다. יהוה(אֶהְיֶה)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와 현재 세대(모세와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출 3:15하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

51) J. G. Janzen, "What's in a Name?", 235: "This three-fold responsive movement achieves the semantic equation 'ehyeh 'asher 'ehyeh = 'ehyeh = yahweh."; T. D. Alexander, *Exodus*, 82를 참조하라.

며 경배할 분이다.[52]

이런 뜻에서 אֶהְיֶה אֲשֶׁר אֶהְיֶה는 하나님 이름의 신학적 의미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나는 내가 되고자 의도하는 그대로의 나다(Ich bin, so viel ich sein will)."라는 말맛을 풍긴다.[53] 다시 말해 אֶהְיֶה אֲשֶׁר אֶהְיֶה라는 하나님 이름은 야훼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한(창조하는) 자이자 보전하는 자이며, 따라서 창조와 역사,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님, 곧 역사적 사건 속에 활동하고 현존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54]

6. 맺는말 – 하나님 이름의 신학적 의미

여러 학자가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각도로 밝혔다.[55] 아이히로트(W. Eichrodt)는 יהוה라는 이름을 "나는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존재하는 자이며, 예전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돕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56]

---

52) T. D. Alexander, *Exodus*, 91 참조.

53) M.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31-32; 데이비슨(A. B. Davidson)은 시제의 기본 목적은 '말하는 사람의 행동과 관련하여 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자유로울 때(출 3:14의 경우처럼) 시제는 의도나 결의, 또는 욕망을 표현한다"라고 말한다. A. B. Davidson, *Hebrew Syntax* (Edinburgh: T&T Clark, 1901), 88; R. J. Pannell, "I Would be Who I Would be! A Proposal for Reading Exodus 3:11-14", *BBR* 16 (2006), 351-353.

54) D. K. Stuart, *Exodus*, NA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6), 153.

55) 예를 들어 벤야민(W. Benjamin)은 이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름은 언어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이런 의미를,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이런 의의를 갖는다. 곧 이름은 언어 자체의 가장 내적인 본질이다 … 이름에서는 정신적 본질이 스스로를 전달하는데, 이것이 그 언어(die Sprache)다. 자신을 전달하는 정신적 본질이 절대적 전체성에서의 언어 자체인 곳, 그곳에만 이름이 존재하고, 또 그곳에는 이름만이 존재한다. 인간 언어의 유산인 이름은 그러므로, 단적인 언어가 인간의 정신적 본질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 인간의 정신적 본질은 그러나 언어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언어 속에서 자신을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적 본질인 언어가 갖는 이 집중적 총체성의 총괄이 이름이다. 인간은 이름하는 자이다.**" W. Benjamin,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 F. Lönker, hrs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 Co. KG., 2019; org. ed. 1916), 11-12.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56) W. Eichrodt, *Die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org. ed., 1933), 131-132.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와 가까이 계신 것을 드러내실 때, 자신이 도울 것을 확신시키실 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따라서 사람들은 '야훼의 이름으로(בְּשֵׁם יהוה)' 곧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드리고 맹세했다. 복을 빌어주기와 저주도 했다. 전투에서도 승리했다(창 4:26; 12:8; 13:4; 삼상 17:45; 20:42; 삼하 6:18; 왕하 2:24; 시 20:5, 7 등).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자신의 속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그들과 연결시

는 의미로 풀이했다.

쳉어(E. Zenger)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신학적 의미를 4가지로 설명했다.[57]

> i) 신뢰, 의지(Zuverlässigkeit): 나는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임재를 확신하며 나를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에 온전히 의지해도 좋다.
>
> ii) 비매수성(Unverfügbarkeit):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다. 너희는 내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나와 마주해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너희가 원하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방식일 수도 있다.
>
> iii) 무제한성(Unbegrenztheit):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나의 임재는 시간의 흐름도, 공간의 경계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적 장벽도 초월한다. 나의 임재는 늘 너희와 함께하며 제한이 없다.
>
> iv) 유일성(Ausschließlichkeit): 나는 너희와 그렇게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나만 너희에게 구원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계산하고 의지해야 한다.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삶의 기준과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결단을 요구한다.

슈미트(W. H. Schmidt)는 출애굽기 3:14에 나타난 אֶהְיֶה אֲשֶׁר אֶהְיֶה와 אֶהְיֶה와 יהו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했다.[58]

> i) 모세의 질문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는 것이며, 회피이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거부로 이해된다. 그레쳐(O. Grether)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אֶהְיֶה אֲשֶׁר אֶהְיֶה는 하나님의 계시인 동시에 그분의 은폐(숨으심)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폴 틸리히의 말을 인용했다.[59]

키고, 그들과 교제하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 이럴 때 그 '이름'은 누군가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와 깊이 연관된 것이다. 이름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와 맺은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יהוה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할 때(민 6:24 이하), 그것은 단순한 축복 기원이 아니다. 그것은 백성 위에 יהוה의 이름을 얹어놓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복의 능력을 옮겨놓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명칭(신명 神名)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다. 신명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의 행위 및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57) E. Zenger, *Der Gott der Bibel*, 111.

58) W. H. Schmidt, *Exodus 1,1-6,30*, 175-178; 참조, C. Dohmen, *Exodus 1-18*, 161-162.

59) 필자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레쳐(O. Grether)의 말을 인용해 본다. *Name und Wort Gottes im Alten Testament*, 8. "하나님께서 사성문자(테트라그람마톤)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동시에 자신을 감추신다. 사자성

ii) 하나님은 고유명사를 하나의 진술로 바꾸어 표현하셨다. 이는 단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표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계속(항상) 있다'라는 뜻으로 하신 '나는 이다(Ich bin)'는 매우 다양한 말맛을 지닌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연결되어, 야훼만이 유일하고도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iii) 존재(Sein)가 자기 자신과의 일치(Einssein mit sich selbst)로 이해될 경우, 출애굽기 3:14는 하나님의 항구성, 신뢰성, 성실성 또는 변치 않음과 영원함을 뜻한다.

iv) 출애굽기 3:14는 오늘 하나님의 현존 곧 실재적인 작용능력을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들은 a) הָיָה 동사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거나 b) 출애굽기 3:12; 4:12, 15 등 출애굽기 3:14와 가까운 곳의 문맥과 더불어 긴밀하게 살펴보거나 c) 비록 출애굽기 3:14의 약속에 대한 비판 또는 부정문으로 쓰이기는 했더라도, 출애굽기 3:14의 해석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호세아 1:9의 말씀과 대비시키거나 d) 출애굽기 6:6-7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연구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출 33:17)"라고 말씀하신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관계에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전도서 7:1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숫자로 헤아리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낸다고 하셨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

이와 같이 이름은 단순히 각기 다른 대상을 구별하는 호칭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한다.[60] 여호와의 이름이란 표현(שֵׁם יהוה)도 단순히 하나님의 명칭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속성), 능력, 사역과 그 효력(작용력·활동력)을 나타낸다.[61]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낸다. 이런 뜻에서 출애굽기 3:14-15의 하나님 이름에는 출애굽 사건도 포함된다.

어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Deus revelatus)의 이름이면서도, 그 계시 가운데 여전히 숨으시는 하나님(Deus absconditus)으로 남아 계신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중적 기능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만일 사성문자가 단지 하나님의 드러남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계시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보존되기 때문이다." RGG^3 IV Sp. 666; 참조 W. H. Schmidt, *Exodus 1,1-6,30*, 179.

60) J. Fichtner, "Die etymologische Ätiologie in den Namengebungen der geschichtli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VT* 6 (1956), 372.

61) *HALOT*, 1434.

학자들은 אֶהְיֶה אֲשֶׁר אֶהְיֶה와 אֶהְיֶה, 그리고 יהוה란 표현에서 그것의 문자적인 어원이나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조차도 견해를 달리한다. 만일 그것이 어느 하나로 결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보다는 신학적·신앙적인 이해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제시 가운데 우리는 הָיָה 동사가 포함된 하나님의 이름에는 효력(작용력)이 들어있다고 한 것에 주목한다. 이런 뜻에서 신명신학 곧 하나님의 이름신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에흐예, 출애굽기 3:13-15, 하나님 이름, 조상의 하나님, 야훼.

אֶהְיֶה אֲשֶׁר אֶהְיֶה, אֶהְיֶה, Exo 3:13-15, The Name of God, God of Fathers, JHWH(YHWH).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유재원 외,『쉬운성경』, 서울: 아가페, 2001.

최의원,『새즈믄 하나님의 말씀』, 서울: 예영커뮤티케이션, 2008.

허성갑,『히브리어직역 구약성경』, 서울: 말씀의 집, 2006.

Die Elberfelder Bibel, Wuppertal; Dillenburg: R. Brockhaus; Christliche Verlagsgesellschaft, 2006.

Kautzsch, E., hrsg., *Die Textbibel*, Tübingen: J.C.B. Mohr, 1906.

권성달,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 '에흐예(אהיה)'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26 (2010), 7-31.

김이곤, "고난신학의 맥락에서 본 야훼 신명 연구", 「신학연구」 27 (1986), 171-202.

김이곤, "야훼는 누구이신가 – 출애굽기 3장", 「기독교사상」340 (1987) 188-203.

김창주, "하나님 네 글자와 두 계약의 연속성 - 출 3장 14절과 계 1장 8절의 경우", 「구약논단」16 (2010), 237-257.

김창주,『출애굽기 나루: 자유와 구원과 해방의 이야기』, 서울: 동연, 2023.

민영진,『출애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박철현, "출애굽기 3:1-4:17 - 평범한 날의 비범한 사건",「헤르메네이아 투데이」23 (2003), 61-71.

박철현,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구약논집」24 (2022), 131-170.

박태범, "구약의 신명(神名) 계시(啓示)에 관한 기초신학적 연구",「가톨릭사상」26 (2002), 103-132.

변경욱, "호세아서 내의 야곱 전승과 모세 전승 합류에 관한 연구 호세아 12장에 나타난 신명의 사용",「구약논단」94 (2024), 141-176.

성서와함께 편집부,『어서 가거라』, 서울: 성서와함께, 1992.

장일선,『구약신학의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주은평, "고대 이집트인의 이해를 근거로 본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에 관한 해석",「구약논단」18 (2012), 61-84.

Abba, R., "The Divine Name Yahweh", *JBL* 80 (1961), 320-328.

Albrektson, B., "On the Syntax of אהיה אשר אהיה in Exodus 3:14", P. R. Ackroyd and B. Lindars, eds., *Words and Meaning: Essays Presented to David Winton Thom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15-28.

Albright, W. F., "Contributions to Biblical Archaeology and Philology", *JBL* 43 (1924), 363-393.

Alexander, T. D., *Exodus*, AOTC, London: Apollos, 2017.

Algyogyi-Hirsch, H., "Uber das angebliche Vorkommen des biblischen

Gottesnamens יהוה Jahve in altbabylonischen Inschriften", *ZAW* 23 (1903), 355-371.

Alter, R., *The Five Books of Mos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8.

Amsler, S., "היה", *THAT* I:477-486.

Andersen, F. I. and Freedman, D. N., *Hosea*, AB, Garden City: Doubleday, 1980.

Arnold, W. R., "The Divine Name in Exodus iii:14", *JBL* 24 (1905), 107-165.

Bächli, O., "Die Erwählung des Geringen im Alten Testament", *ThZ* 22 (1966), 385-395.

Bartelmus, R., "Ex 3,14 und die Bedeutung von HYH", R. Bartelmus, hrsg., *Auf der Suche nach dem archimedischen Punkte der Interpretation: Studien zu einer philologisch-linguistisch fundierten Exegese alttestamentlicher Texte*, Zürich: Pano Verlag, 2002, 383-402.

Becking, B., "Jahwe", *WiBiLex*, 2006, accessed 10 October 2025 from https://bibelwissenschaft.de/stichwort/22127/.

Beitzel, B., "Exodus 3:14 and the Divine Name: A Case of Biblical Paronomasia", *TJ* 1 (1980), 5-20.

Benjamin, W., *Über Sprache überhaupt und über die Sprache des Menschen*, F. Lönker, hrsg.,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GmbH & Co. KG., 2019; org. ed. 1916.

Bergman, J. "hājâ", *ThWAT* II: 393-396.

Botterweck, G. J. and Ringgren, H., hrsg.,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I-X,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3-2000. (*ThWAT*)

Brownlee, W. H., "The Ineffable Name of God", *BASOR* 226 (1977), 39-46.

Buber, M., *Moses: The Revelation and the Covenant*, New York: Harper Torchbook, 1958.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org. ed. 1951.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Cross, F. M., "Yahweh and the God of the Patriarchs", *HTR* 55 (1962), 225-259.

Davidson, A. B., *Hebrew Syntax*, 3rd ed., Edinburgh: T.&T. Clark, 1901.

Davies, G. I., *Exodus 1–18*, 2 vols, ICC, Bloomsbury: T&T Clark, 2020.

De Vaux, R., "La revelation du nom divin", R. de Vaux, ed., *Histoire ancienne d'Israël, Vol. 1: Des origine à l'installation en Canaan*, Paris: Gabalda, 1971, 48-75.

Dohmen, C., *Exodus 1-18*, HThKAT, Berlin: Herder, 2015.

Dozeman, T. B., *Exod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9.

Driver, S. R., *The Book of Exodus: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org. ed. 1918.

Eichrodt, W.,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7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org. ed. 1933.

Eißfeldt, O., "Jahwe, der Gott der Väter", *ThLZ* 88 (1963), 481-490.

Eißfeldt, O., "Neue Zeugnisse für die Aussprache des Tetragramms als Jahwe", *ZAW* 53 (1935), 59-76.

Eißfeldt, O., *Kleine Schriften*, Bd. 4, Tübingen: J.C.B. Mohr, 1968.

Enns, P., *Exodu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Fichtner, J., "Die etymologische Ätiologie in den Namengebungen der geschichtli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VT* 6 (1956), 372-396.

Fischer, G., *Jahwe unser Gott: Sprache, Aufbau und Erzähltechnik in der Berufung des Mose (Ex 3–4)*, OBO 9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Floss, J. P., "Ich bin mein Name. Die Identität von Gottes Ich und Gottes Name in Ex 3,14.", W. Gross, H. Irsigler, and T. Seidl, hrsg., *Text Methode und Grammatik: Wolfgang Richter zum 65. Geburtstag*, Wien: EOS Verlag, 1991, 67-80.

Freedman, D. N.,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JBL* 79 (1960), 151-156.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 hrsg., 18th ed., Berlin: Springer, 2013; org. ed. 1815. (*Gesenius*)

Goitein, S. D., "YHWH the Passionate: The Monotheistic Meaning and Origin of the Name YHWH", *VT* 6 (1956), 1-9.

Greenberg, M., *Understanding Exodus: A Holistic Commentary on Exodus 1-11*, Eugene: Cascade Books, 2013.

Grether, O., *Name und Wort Gottes im Alten Testament*, BZAW 64, Berlin: Verlag von Alfred Topelmann, 1934.

Hamilton, V. P., *Exodu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Haupt, P., "Der Name Jahwe", *OLZ* 12 (1909), 211-214.

Houtman, C., *Exodus*, HCO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Hyatt, J. P., "Was Yahweh Originally a Creator Deity?", *JBL* 86 (1967), 369-377.

Irsigler, H., "Von der Namensfrage zum Gottesverständnis: Exodus 3:14-15 im Kontext der Glaubensgeschichte Israels", *BN* 96 (1999), 56-96.

Isbell, C. D., "The Divine Name ehyeh as a Symbol of Presence in Israelite Tradition", *HAR* 2 (1978), 101-118.

Janzen, J. G., "What's in a Name? Yahweh in Exodus 3 and the Wider Biblical Context", *Int* 33 (1979), 227-239.

Jenni, E. and Westermann, C., hrsg.,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II,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6.

Kilwing, N., "Noch einmal zur Syntax von Ex 3,14", *BN* 10 (1979), 70-79.

Knauf, E. A., "Yahwe", *VT* 34 (1984), 467-472.

Köhler, L. and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Bd. 2, 3rd ed., Leiden: Brill, 2004; org. ed., 1953. (*HALOT*)

Lundbom, J. R., "God's Use of the Idem per Idem to Terminate Debate", *HTR* 71 (1978), 193-201.

MacLaurin, E. C. B., "YHWH: The Origin of the Tetragrammaton", *VT* 12 (1962), 439-463.

McCarthy, D. J., "Exod 3:14: History, Philology and Theology", *CBQ* 40 (1978), 311-322.

Millard, A. R., "Yw and Yhw Names", *VT* 30 (1980), 208-212.

Motyer, J. A.,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Name*, London: Tyndale, 1959.

Mowinckel, S., "The Name of the God of Moses", *HUCA* 32 (1961), 121-133.

Müller, H.-P., "Der Jahwename und seine Deutung Ex 3,14 im Licht der Textpublikationen aus Ebla", *Bib* 62 (1981), 305-327.

Noce, C., "Il nome di Dio: Origine e l'interpretazione dell'Es. 3,14", *Div* 21 (1977), 23-50.

Noth, M., *Das zweite Buch Mose (Exodus),* ATD 5, 8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org. ed., 1958.

Osborn, N. D., "This Is My Name Forever: 'I Am' or 'Yahweh'", *BT* 39 (1989), 410-415.

Pannell, R. J., "I Would be Who I Would be! A Proposal for Reading Exodus 3:11-14", *BBR* 16 (2006), 351-353.

Phillips A. and Phillips, L., "The Origin of 'I AM' in Exodus 3.14", *JSOT* 23 (1998), 81-84.

Preuß, H. D., "··· ich will mit dir sein!", *ZAW* 80:2 (1968), 139-178.

Propp, W. H. C., *Exodus 1-18*, AB, Garden City: Doubleday, 1999.

Ratschow, C. H., *Werden und Wirken, eine Untersuchung des Wortes hajah*, BZAW 70, Berlin: Verlag von Alfred Töpelmann, 1941.

Sailhamer, J.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2.

Schmidt, W. H., *Exodus 1,1-6,30*, B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Seitz, C. R., "The Call of Moses and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Name: Source-Critical Logic and Its Legacy", C. R. Seitz and K. Greene-McCreight, eds., *Theological Exegesis: Essays in Honor of B. S. Childs*, Grand Rapids: Eerdmans, 1999, 145–161.

Spoer, H. H., *The Origi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tragrammat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1.

Stahl, M. J.,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Biblical God Yahweh", *Religion Compass* 2 (2020), 1-14.

Stuart, D. K., *Exodus*, NA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6.

Surls, A. D., *Making Sense of the Divine Name in the Book of Exodus From Etymology to Literary Onomastic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Supplement, Winona Lake: Eisenbrauns, 2017.

Theuer, G., "Die Ambivalenz und Unverfügbarkeit Gottes im Alten Testament", P. Thomas and A. Benk, hrsg., *Negativität und Orientierung*,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2008, 81-99.

Utzschneider, H. and Oswald, W., *Exodus 1-15*, IEKAT,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2013.

Völter, D., "Die Herkunft Jahwes", *ZAW* 37 (1917), 126-133.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d. 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Wambacq, B. N., "'ehyeh 'ăšer 'ehyeh", *Bib* 59 (1978), 317-338.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Mit Nachträgen*, 5th ed., Berlin: Walter De Gruyter 2018; org. ed. 1889.

Youngblood, R., "A New Occurrence of the Divine Name 'I AM'", *JETS* 15 (1972), 144-152.

Zenger, E., *Am Fuß des Sinai: Gottesbilder des Ersten Testaments*, Düsseldorf: Patmos, 1993.

Zenger, E., *Der Gott der Bibel: Ein Sachbuch zu den Anfängen des alttestamentlichen Gottesglaubens*, 3rd ed.,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86; org. ed. 1979.

Zimmerli, W., *Gottes Offenbarung; Gesammelte Aufsätze zum Alten Testament,* TB 16,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3; org. ed. 1943.

<Abstract>

אֶהְיֶה אֲשֶׁר אֶהְיֶה in the Context of the Theology of the Divine Name (Exo 3:13-15)

Hyun Jin Chung
(Hanshin University)

Exodus 3:13-15 presents the foundational narrative in which God, in the course of His encounter with Moses, discloses His own name. This pericop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decisive point of departure for any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God. Consequently, it occupies a central place in linguistic inquiry, the history of religions,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exegesis.

In response to Moses' inquiry regarding the divine name, God articulates His self-identification through four interrelated designations: i) the God of your fathers, ii) אֶהְיֶה אֲשֶׁר אֶהְיֶה, iii) אֶהְיֶה, and iv) יהוה.

This revelation, however, raises a series of profound interpretive challenges. The principal question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 What is the root or origin of the divine name?; ii) How are these names to be analyzed in terms of Hebrew grammar and usage?; iii) How should the tetragrammaton יהוה be vocalized?; iv) What historical and theological context underlies the revelation of the name יהוה?; v) What is the precise meaning of the expressions אֶהְיֶה אֲשֶׁר אֶהְיֶה and אֶהְיֶה, which accompany the disclosure of יהוה?; vi) What is signified by the designation "the God of your fathers"?; vii) How should one understand the declaration, "This is my eternal name, and this is my memorial to all generations"?

None of these questions admits a simple resolution. Each has generated extensive scholarly debate and a diversity of proposals. In the present discussion, attention will be directed primarily toward questions iv) through vi).

The biblical canon contains numerous titles and epithets associated with the divine name. Expressions such as El Olam or El Elyon, for instance, tend to accentuate particular attributes or dimensions of God's nature. By contrast, יהוה (אֶהְיֶה) functions not merely as a descriptive title but as a designation of God in His very being. It conveys not so much a specific characteristic as the comprehensive reality of God Himself.

יהוה (אֶהְיֶה) is the God who transcends temporal boundaries: He is the God of past generation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 God of the present generation (Moses and his contemporaries), and the God of generations yet to come. As Exodus 3:15b affirms, “This is my eternal name, and thus I am to be remembered throughout all generations.” The divine name therefore establishes Jahwe as the One who is to be perpetually invoked, remembered, and worshiped.

In this theological sense, the expression אֶהְיֶה אֲשֶׁר אֶהְיֶה bears the nuance of self-determination: “I am who I intend to be (Ich bin, so viel ich sein will).” Accordingly, the divine name אֶהְיֶה אֲשֶׁר אֶהְיֶה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fession that Yahweh is the One who created — and continues to create — and who sustains all that exists within the cosmos. Thus, He is the Lord of creation and history, the sovereign over all beings and all events, the One who acts and remains present within the unfolding of historical reality.